

# “한국GM 군산공장 정상 가동하라”

전북 시장군수협의회 성명

“한국GM, 경영 정상화  
자구책 마련은 뒷전  
군산공장 희생양 삼아  
정부 압박은 도민 우롱”

전북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황숙주)는 22일 일주에서 민선6기 4차년도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당면 현안사항과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는 지난 13일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한국GM 군산공장 정상 가동 촉구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황숙주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200만 전북도민은 한국GM 군산공장을 가족처럼 여기며 위기가 있을 때마다 GM 살리기에 앞장섰으며, 법 도민 GM 차 사주기 운동 등을 펼치는 등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는데 한국GM의 일방적인 폐쇄 결정 통보로 배신감이 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GM은 일하고 싶다고 외치는 근로자들의 아우성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수출 부진과 내수시장의 경쟁력 약화에 대



전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22일 일주에서 민선6기 4차년도 제3차 회의를 연 가운데, 한국GM 군산공장 정상 가동 촉구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 원인을 전적으로 군산공장 책임으로 돌리고 있으며, 한국GM이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은 뒷전인 채 군산공장을 희생양으로 삼아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은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이미 5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연이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수만 명의 근로자가 대

량 실직하게 되어 전북 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조선소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가동 중단이었으며, 이번 GM사태 해결에 있어 정부와 정치권이 더 이상 전북 도민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한국GM은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오직 GM의 발전만을 바랐던 전북도민에게 배리맹골 GM 총괄 부사장의 ‘군산공장 폐쇄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 발표는 큰 좌절을 안겨줬다”며 “정부에서 발표한 고용대책도 필요하지만 가장 절실한 것은 한국GM 군산공장 정상 가동”이라며 200만 전북도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군산공장 정상화를 열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민주평화당 입당 선언”

전북도의회 이도영 의원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

전북도의회 이도영 의원(동서학·서서학동, 평화·2동)과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동서학·서서학동, 평화동)이 22일 민주평화당 입당을 선언했다. 이도영 의원은 “이번 입당이 한걸음 더 도민들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민생정치를 실천하는 길이라 믿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정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영환 의원은 국민의당에 입당할 당시 “전주발전이란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실감했고 정치권과 힘을 결집하기 위해 국민의당에 합류지만 대다수 시민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통합 움직임을 두고 반대했고 민주평화당의 DI의 햇볕정책 계승, 평화 공존의 한반도 건설 등 창당 비전이 전주시민의 정신과 일치한다고 판단해 입당하게 되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진성 기자

## 도내 의병운동 참가자 800명 신규 발굴

광복회 전북지부 ‘한말 전북의병사 연구조사 발표회’서 추가 독립유공자 서훈사업·문화콘텐츠 발굴 확정될 듯

광복회 전북도지부(지부장 이강안)는 22일 전북도청 3층 중회의실에서 김승일 전북도 행정부지사, 조광국 사편찬위원장, 송성환, 국주영은 전북도위원을 비롯한 보훈단체 관계자와 시민, 대학생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말 전북의병사 연구조사 발표회’를 했다.

이번 발표회는 지난 해 8월부터 광복회 전북도지부 주관으로 ‘전북지역 의병자료 번역 및 정리사업’을 추진한 성과로 단행본 출판과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전북지역 의병자료 번역 및 정리사업은 전북지역 의병 역사 재조명과 및 의병운동 참가자 신규 발굴과 의병항쟁 유적지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모색 등을 목적으로 진행했다. 5개월 동안 진행된 연구조사 사업

은 그간 미 번역된 각종 의병 자료와 일본 측 재판 자료 등을 통해 전북지역에서 의병운동에 참가한 이들의 인적 정보를 자료화했다.

그 결과 기존에 독립유공자로 추서된 421명의 전북지역 의병참가자 이외 800여명의 의병 참가자를 신규로 발굴할 수 있었다.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전북지역 의병운동 참가자의 활동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추가 독립 유공자 서훈사업과 의병운동관련 문화콘텐츠 발굴로 확장될 것이라 예상된다.

김승일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축사에서 “한말 전북의병사가 학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전북지역 의병역사의 재조명 계기가 되길 바라며, 독립유공자 추

가서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덕진선관위, 덕진경찰서에서 경찰공무원 대상 선거법 안내

전주시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강의를 했다.

이날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주요 내용, 정치관계법 사례 예시 등을 중심으로 김정일 지도홍보계장의 강의로 이루어졌다.

한편 덕진구선관위와 덕진경찰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깨끗한 선거를 위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각종 정치관계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단속·조치할 것을 협의했다. /채규남 기자

## 전주 드론축구 세계화 날갯짓

시, 서울 국제레저스포츠산업전시 시범경기 등 운영

전주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보급한 드론축구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레저스포츠 산업전에서 주목받으면서 세계화 가능성이 높



22일 열린 '2018 서울 국제레저스포츠산업전'에서 참석자들이 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는 모습.

아지고 있다. 시는 22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8 서울 국제레저스포츠산업전(이하 SPOEX)'에서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에게 드론축구를 알리기 위한 시범 경기와 시범경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열린 SPOEX는 글로벌 레저스포츠 박람회로 오는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관계자 등은 드론축구 시범에 이어 전시장에 마련된 오픈마켓 경기장을 둘러보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코엑스 전시장에 설치된 이동식 경기장에서는 드론축구 시범경기가 펼쳐지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돼 관람객들이 ICT 융복합 미래형 레저스포츠인 드론축구의 재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 드론축구 경기장에서는 오는 24일에는 이번 SPOEX 부대행사로 국내 드론축구 최강팀을 가리는 '2018 SPOEX컵 전국드론축구대회'도 열릴 예정이다. 드론축구 전국대회는 4회제를 맞이한 이번 대회

에는 대한드론축구협회 전국 13개 지부 산하 16개 팀, 총 2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전국 최강자 자리를 놓고 승부를 가린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드론축구는 드론의 활용도를 레저스포츠로까지 넓혀 드론 제조 시장보다 성장 가능성이 훨씬 큰 활용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번 서울 국제레저스포츠 산업전이 드론축구의 재변과 인기를 확인할 절호의 기회인 만큼 많은 시민들 앞에서 생동감 있는 경기 내용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드론축구가 대한민국 대표 ICT 레저스포츠임을 각인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480여 개사에서 1,950개 부스가 마련돼 헬스, 피트니스, 캠핑카 등 세계적인 레저스포츠 용품 및 아이템들이 전시되는 이번 국제레저스포츠 산업전이 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많은 관람객들과 500여 명의 국내·외 바이어들 앞에서 드론축구 글로벌 마케팅을 향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규남 기자

## 평창서 전북 알리기 ‘구슬땀’

도, 홍보관 운영 새만금 잼버리·전국체전 등 홍보

전북도는 22일,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현장에서 전북도 홍보관을 운영했다.

평창 페스티벌 파크 내에 전북 홍보관을 설치하고 전북도정 핵심사업인 2023 새만금 잼버리 대회, 제99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아 전북투어패스와 주요 관광지를 중점적으로 알렸다.

전북도는 세계잼버리 추진단, 전국체전 추진단 및 관광마케팅팀 등 50여명

이 함께 홍보관에서 뿐만 아니라 경기 시설 곳곳을 찾아가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 선수 및 평창을 찾는 내국인들에게 새만금과 우수한 관광 자원 등을 알리기 위해 힘썼다.

도 김양원 차치행정국장은 “올림픽은 2023 세계잼버리 대회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국내외의 관람객에게 2023 세계 잼버리 대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성공적으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